

2차전지 핵심소재 실용화 추진

울산테크노파크, 211억원 투입 ... 삼성정밀화학 · SK케미칼 참여

울산테크노파크가 2차전지 핵심소재 실용화를 추진한다.

울산테크노파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대·중·소 연계형 2차전지 핵심소재 실용화사업을 추진하며, 2013년 4월까지 211억7000만원을 투입해 2차전지 소재와 기술의 시장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체계화된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10월31일 발표했다.

사업은 울산테크노파크가 총괄하고 한국전기연구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대학교, 한국전지연구조합, 삼성정밀화학, 휘닉스소재, SK케미칼, 용진유화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울산테크노파크는 10월31일 부속 연구센터인 2차전지 실용화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센터는 인력과 장비를 단계적으로 갖추고 지역기업 2차전지제품의 적합성 분석, 시제품 시험평가, 인증 지원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개소식에서 박맹우 울산시장은 “울산시는 전지산업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에 이어 제4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31>